

**2005년도**

# **마약류 남용실태 및 의견조사**

**- 경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인사말

마약류 경험자가 어떻게 마약류를 했으며,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 또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보았는지, 그 효과가 어땠는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보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그 가족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 및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는 노력도 거의 없었다.

이에 마약퇴치운동본부는 경험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조사해보기로 결정하고는, 이한덕 팀장을 중심으로 이동은 홍보과장과 장유정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수차례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경험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작성된 설문지를 박상규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와 현명호 교수(중앙대 심리학과)의 자문을 얻어 조정한 다음, 송천섭터 등 경험자를 통해 1차로 문안을 검토하여 확정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하는데 많은 기관에서 도움을 주었다. 특히 조성남 원장(국립부곡병원), 신용원 목사, 안미영 전도사, 이준삼 교육팀장(대전교도소), 주영희 님(공주교도소)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지부의 임직원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설문지 구성부터 설문지 회수, 입력, 보고서 작성 전 과정을 주도한 이한덕 팀장의 노고가 컸다.

이사장 김 명 섭



# 목 차

I. 요약 .....	1
II. 서론 .....	13
제1장. 연구목표 .....	1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2. 연구목표 .....	14
3. 연구 범위 .....	14
제2장. 연구내용 및 방법 .....	15
1. 연구내용 .....	15
가.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 연구내용 .....	15
나.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 가족 연구내용 .....	17
2. 연구대상 .....	19
가.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 .....	19
나.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 .....	20
3. 연구방법 .....	20
가. 조사도구 .....	20
나. 자료수집 방법 .....	21
다. 자료 분석 방법 .....	22
III. 연구결과 .....	22
제1장. 경험자 연구결과 .....	22
1. 일반사항 .....	23
2. 남용물질(마약류)별 사용실태 .....	29
3. 남용물질(마약류) 사용동기 .....	37
4.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관련 제 문제 및 사용배경 .....	42
5. 치료 및 재활 일반 .....	74
6. 치료보호프로그램 .....	93

7. 교정시설프로그램 .....	115
8. 상담 및 교육관련 .....	125
제2장. 가족 연구결과 .....	143
1. 일반사항 .....	143
2. 남용물질(마약류)별 사용실태 .....	146
3. 남용물질(마약류) 사용을 알았을 때 상황 및 처리방식 .....	149
4.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이유 및 발생 문제 .....	151
5. 치료 및 재활 일반 .....	152
6.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을 위한 가족의 노력 .....	154
7. 치료보호프로그램 .....	156
8. 기타 .....	158
IV. 주요결과 요약 및 제언 .....	159
제1장. 주요결과 요약 .....	159
1. 경험자 연구결과 .....	159
2. 가족연구결과 .....	165
제2장. 제언 .....	170
부록 .....	
1. 경험자용 설문지 .....	
2. 가족용 설문지 .....	

## 표 목차

<표 I-1> 조사대상 기관 .....	23
<표 I-2> 조사대상자의 성별 .....	24
<표 I-3>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	24
<표 I-4> 조사대상자의 종교 .....	24
<표 I-5>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 .....	25
<표 I-6>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 .....	25
<표 I-7> 조사대상자의 프로그램 입소 전 혹은 현 직업 .....	26
<표 I-8>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 .....	27
<표 I-9>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수(본인 포함) .....	27
<표 I-10> 건강 상태 .....	28
<표 I-11> 거주지 .....	28
<표 I-12> 조사대상자의 참여프로그램의 입소기간 .....	28
<표 II-1>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by 현 참여 프로그램 .....	29
<표 II-2> 남용물질(마약류)별 최초 사용 연령 .....	31
<표 II-3> 남용물질(마약류)별 프로그램 입소시점의 마지막 사용 시점 .....	32
<표 II-4> 남용물질(마약류)별 평균 사용 횟수 .....	32
<표 II-5> 남용물질(마약류)별 평균 사용 량 .....	33
<표 II-6> 남용물질(마약류)별 구입방법 .....	35
<표 II-7> 누구와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by 현 참여 프로그램 .....	36
<표 II-7-①> 누구와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37
<표 II-7-②> 누구와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by 현 연령 .....	37
<표 III-1> 최초 남용물질 사용 동기 by 현 참여 프로그램 .....	38
<표 III-2> 최초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동기 by 연령별 남용물질별 .....	39
<표 III-3> 최근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동기 by 현 참여 프로그램 .....	40
<표 III-4> 최근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동기 by 연령별 남용물질별 .....	41
<표 IV-1> 전과 이유 by 현 참여 프로그램 .....	42
<표 IV-1-①> 전과 이유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42
<표 IV-1-②> 전과 이유 by 현 연령 .....	43

<표 IV-2> 구체적인 전과 사유 by 현 참여 프로그램 .....	44
<표 IV-2-①> 구체적인 전과 사유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44
<표 IV-2-②> 구체적인 전과 사유 by 현 연령 .....	45
<표 IV-3> 검거횟수 by 현 참여 프로그램 .....	45
<표 IV-3-①> 검거횟수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46
<표 IV-3-②> 검거횟수 by 현 연령 .....	46
<표 IV-4>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관련 발생 문제 .....	47
<표 IV-5> 대인관계 문제 by 현 참여 프로그램 .....	48
<표 IV-5-①> 대인관계 문제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50
<표 IV-5-②> 대인관계 문제 by 현 연령 .....	51
<표 IV-6> 경제관계 문제 by 현 참여 프로그램 .....	52
<표 IV-6-①> 경제관계 문제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53
<표 IV-6-②> 경제관계 문제 by 현 연령 .....	54
<표 IV-7> 직업(학업)관계 문제 by 현 참여 프로그램 .....	55
<표 IV-7-①> 직업(학업)관계 문제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56
<표 IV-7-②> 직업(학업)관계 문제 by 현 연령 .....	57
<표 IV-8> 사용 증상 및 정도 by 현 참여 프로그램 .....	59
<표 IV-8-①> 사용 증상 및 정도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61
<표 IV-8-②> 사용 증상 및 정도 by 현 연령 .....	62
<표 IV-9>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 .....	64
<표 IV-10>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성격) by 현 참여 프로그램 .....	65
<표 IV-10-①> 남용물질 사용 배경(성격)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66
<표 IV-10-②>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성격) by 현 연령 .....	67
<표 IV-11> 남용물질 사용 배경(10대 때 행위) by 현 참여 프로그램 .....	68
<표 IV-11-①> 남용물질 사용 배경(10대 때 행위) by 남용물질 .....	68
<표 IV-11-②>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10대 때 행위) by 현 연령 .....	69
<표 IV-12>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가족관련) by 현 참여 프로그램 .....	70
<표 IV-12-①> 남용물질 사용 배경(가족관련)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71
<표 IV-12-②>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가족관련) by 현 연령 .....	72
<표 IV-13>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지역사회) by 현 참여 프로그램 .....	72
<표 IV-13-①> 남용물질 사용 배경(지역사회)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73
<표 IV-13-②>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지역사회) by 현 연령 .....	74



<표 V-1> 단약시도 여부 .....	75
<표 V-2> 단약계기 by 현 참여 프로그램 .....	76
<표 V-2-①> 단약계기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77
<표 V-2-②> 단약계기 by 현 연령 .....	77
<표 V-3> 받아 본 프로그램 종류 by 현 참여 프로그램 .....	78
<표 V-3-①> 받아 본 프로그램 종류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79
<표 V-4> 받아 본 프로그램 별 기간 .....	80
<표 V-5> 받아 본 프로그램별 도움 여부 .....	80
<표 V-6> 남용물질 사용 중단 및 중단유지에 도움이 된 프로그램 .....	81
<표 V-6-①> 중단, 유지 도움 된 프로그램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82
<표 V-6-②> 사용 중단 및 유지에 도움 된 프로그램 by 현 연령 .....	82
<표 V-7> 도움이 된 세부 프로그램 .....	83
<표 V-7-①> 도움이 된 세부 프로그램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84
<표 V-7-②> 도움이 된 세부 프로그램 by 현 연령 .....	85
<표 V-8> 프로그램 퇴소 후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 여부 .....	86
<표 V-8-①> 사용 중단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86
<표 V-8-②> 사용 중단 여부 by 현 연령 .....	87
<표 V-9> 프로그램 퇴소 후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재발 기간 .....	87
<표 V-9-①> 퇴소 후 재발 기간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88
<표 V-9-②> 퇴소 후 재발 기간 by 현 연령 .....	88
<표 V-10>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계획 by 현 참여 프로그램 .....	89
<표 V-10-①>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계획 by 경험 남용물질 .....	89
<표 V-10-②> 남용물질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계획 by 현 연령 .....	90
<표 V-11> 사용 중단에 가장 좋은 방안 by 현 참여 프로그램 .....	91
<표 V-11-①> 사용 중단에 가장 좋은 방안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91
<표 V-11-②> 사용 중단에 가장 좋은 방안 by 현 연령 .....	92
<표 VI-1> 치료보호프로그램 인지 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93
<표 VI-1-①> 치료보호프로그램 인지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93
<표 VI-1-②> 치료보호프로그램 인지 여부 by 현 연령 .....	94
<표 VI-2> 치료보호프로그램 인지 방법 by 현 참여 프로그램 .....	94
<표 VI-2-①> 치료보호프로그램 인지 방법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95
<표 VI-2-②> 치료보호프로그램 인지 방법 by 현 연령 .....	95

<표 VI-3>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지식 정확성 평가 .....	96
<표 VI-3-①>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정도 by 현 참여 프로그램 .....	97
<표 VI-3-②>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정도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98
<표 VI-3-③>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지식정도 by 현 연령 .....	99
<표 VI-4> 치료보호프로그램 참여 방법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00
<표 VI-4-①> 치료보호프로그램 참여 방법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01
<표 VI-4-②> 치료보호프로그램 참여 방법 by 현 연령 .....	102
<표 VI-5> 치료보호프로그램 도움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02
<표 VI-5-①> 치료보호프로그램 도움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03
<표 VI-5-②> 치료보호프로그램 도움 여부 by 현 연령 .....	103
<표 VI-6> 도움이 된 세부 치료보호프로그램 내용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04
<표 VI-6-①> 도움이 된 세부 치료보호프로그램 내용 by 경험 남용물질 .....	104
<표 VI-6-②> 도움이 된 세부 치료보호프로그램 내용 by 현 연령 .....	105
<표 VI-7> 치료보호프로그램 꺼린 이유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06
<표 VI-7-①> 치료보호프로그램 꺼린 이유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07
<표 VI-7-②> 치료보호프로그램 꺼린 이유 by 현 연령 .....	107
<표 VI-8> 치료보호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계획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08
<표 VI-8-①> 치료보호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계획 by 경험 남용물질 .....	108
<표 VI-8-②> 치료보호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계획 by 현 연령 .....	109
<표 VI-9> 치료보호제도 의견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10
<표 VI-9-①> 치료보호제도 의견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11
<표 VI-9-②> 치료보호제도 의견 by 현 연령 .....	113
<표 VI-10> 건강보험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14
<표 VI-10-①> 건강보험 여부 by 경험 남용물질 .....	115
<표 VI-10-②> 건강보험 여부 by 현 연령 .....	115
<표 VII-1> 교정시설 입소 경험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16
<표 VII-1-①> 교정시설 입소 경험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16
<표 VII-1-②> 교정시설 입소 경험 by 현 연령 .....	117
<표 VII-2> 마약류관련 프로그램 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17
<표 VII-2-①> 마약류관련 프로그램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18
<표 VII-2-②> 마약류관련 프로그램 여부 by 현 연령 .....	118
<표 VII-3> 마약류관련 수강 세부 프로그램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19

<표 VII-3-①> 마약류관련 수강 세부 프로그램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19
<표 VII-3-②> 마약류관련 수강 세부 프로그램 by 현 연령 .....	120
<표 VII-4> 교정시설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21
<표 VII-4-①> 교정시설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21
<표 VII-4-②> 교정시설 프로그램의 도움 여부 by 현 연령 .....	121
<표 VII-5> 출소 후 사용 중단 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22
<표 VII-5-①> 출소 후 사용 중단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22
<표 VII-5-②> 출소 후 사용 중단 여부 by 현 연령 .....	123
<표 VII-6> 출소 후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23
<표 VII-6-①> 출소 후 남용물질 사용 중단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24
<표 VII-6-②> 출소 후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 by 현 연령 .....	124
<표 VIII-1> 교육 수강 여부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25
<표 VIII-1-①> 교육 수강 여부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25
<표 VIII-1-②> 교육 수강 여부 by 현 연령 .....	126
<표 VIII-2> 교육의 종류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26
<표 VIII-2-①> 교육의 종류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27
<표 VIII-2-②> 교육의 종류 by 현 연령 .....	127
<표 VIII-3> 교육제공 시설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28
<표 VIII-3-①> 교육 제공 시설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28
<표 VIII-3-②> 교육 제공 시설 by 현 연령 .....	129
<표 VIII-4> 인상적인 교육제공 시설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30
<표 VIII-4-①> 인상적인 교육제공 시설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31
<표 VIII-4-②> 인상적인 교육제공 시설 by 현 연령 .....	131
<표 VIII-5> 추천 프로그램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32
<표 VIII-5-①> 추천 프로그램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33
<표 VIII-5-②> 추천 프로그램 by 현 연령 .....	133
<표 VIII-6> 추천 프로그램 기간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34
<표 VIII-6-①> 추천 프로그램 기간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34
<표 VIII-6-②> 추천 프로그램 기간 by 현 연령 .....	135
<표 VIII-7> 추천 프로그램 효과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36
<표 VIII-7-①> 추천 프로그램 효과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36
<표 VIII-7-②> 추천 프로그램 효과 by 현 연령 .....	136

<표 VIII-8> 추천 프로그램 기간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37
<표 VIII-8-①> 추천 프로그램 기간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38
<표 VIII-8-②> 추천 프로그램 기간 by 현 연령 .....	138
<표 VIII-9> 상담자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39
<표 VIII-9-①> 상담자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39
<표 VIII-9-②> 상담자 by 현 연령 .....	140
<표 VIII-10> 상담하지 않은 이유 by 현 참여 프로그램 .....	141
<표 VIII-10-①> 상담하지 않은 이유 by 사용 경험 남용물질 .....	141
<표 VIII-10-②> 상담하지 않은 이유 by 현 연령 .....	142
<표 IX-1> 조사대상자의 성별 .....	143
<표 IX-2>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 .....	143
<표 IX-3> 조사대상자의 종교 .....	144
<표 IX-4> 조사대상자의 학력분포 .....	144
<표 IX-5>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 .....	144
<표 IX-6> 조사대상자의 프로그램 입소 전 혹은 현 직업 .....	145
<표 IX-7>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 .....	145
<표 IX-8>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 수(본인 포함) .....	145
<표 IX-9> 조사대상자의 건강상태 .....	146
<표 IX-10> 거주지 .....	146
<표 X-1>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	147
<표 X-2>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	147
<표 X-3> 남용물질(마약류)별 최초 사용 확인 시점 .....	148
<표 X-4> 남용물질(마약류)별 사용 중단 연령 .....	148
<표 X-5> 남용물질(마약류)별 평균 사용횟수 .....	149
<표 X-6>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관련 발생 문제 .....	150
<표 X-7>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이유 및 발생 문제 .....	151
<표 X-8> 프로그램에 적극참여하지 못한 요인 .....	155

# I. 요약

## 1. 연구 필요성 및 목표 등

최근 마약류 안전지대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상정해 마약류 의존자의 치료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경험자 사회복귀시설인 송천쉼터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sup>1)</sup>하는 한편 NA모임 창립<sup>2)</sup> 및 확대 실시 등 마약류 경험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및 민간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마약류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태 및 그들의 치료 욕구와 경험자 가족들의 치료재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료보호프로그램, 교정시설, 보호관찰, 운동본부 프로그램,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NA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마약류 의존자 및 경험자를 대상으로 1) 마약류 남용 실태 및 사용 동기, 증상, 발생 문제 및 사용 배경을 파악하고, 2) 단약경험 및 치료재활을 위해 참여했던 프로그램 및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및 의견을 얻고, 3) 치료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지식 정도와 제도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며, 4) 교정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교육 및 상담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여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정책 및 방향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 1) 2002년 개설된 송천쉼터는 2005년 말 부터 6개월의 재활교육프로그램을 3개월 재활교육, 3개월 직업재활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의존자들이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단약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매년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일본의 관련 단체인 아파리와 교류하였고, 1999년경부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이화모임 등 몇몇 NA 모임이 결성되어 운영되어 오던 것들이 심포지엄의 장을 통해 일본 등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NA 창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4년 마약퇴치 심포지엄에서 창립하게 되었다.

또한 보조적으로 경험자 가족들로부터도 관련된 의견을 파악하여 마약류 의존자의 치료재활 정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 연구내용

- 약물사용 경험
  - 남용물질(마약류)을 향정물질, 대마, 마약, 유해흡입물질 등 7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하고, 각 남용물질별로 사용여부, 처음 사용 나이, 가장 최근 사용시점, 지난 1년 동안 사용횟수, 한번 사용량, 구입 경로, 이외에 함께 사용하는 사람, 처음 사용 이유와 최근 사용 이유를 포함.
- 법적 처벌관련 내용
  - 남용물질(마약류)과 관련한 전과 여부와 그 전과의 구체적인 사유 및 검거 횟수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관련 대인관계(가족 포함), 경제 및 직업문제 내용
  - 대인관계, 경제 및 직업(학업)문제를 4점 척도의 설문지로 구성. 대인관계문제로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 가족에 의해 강제된 경험 혹은 가족에게 못살게 한 경험, 타인의 상해 경험, 혹은 (타인) 의심증 등 개인적 경험 등을, 경제문제로는 사용자의 경제적 파탄, 귀중품 판매, 약물판매, 강절도 등 경험, 가족의 경제적 파산 등을, 직업(학업)관계 문제로는 능력 떨어짐, 지각 등 많아짐, 상사 등으로 부터 꾸지람, 직장에서 쫓겨남 등을 포함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증상 및 정도 관련 내용
  - 조절 사용 어려움, 내성, 금단증상, 다른 일 소홀 등 영향, 자기 연민, 며칠이고 계속적인 사용(중독자의 일반적 특성), 기억 못하는 것(필름 끊기는 것), 반발심과 약물 사용에 대한 충동 등을 4점 척도로 구성.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배경

- 성격, 10대 때 행위, 가족관련 내용 및 지역사회관련 내용. 성격과 관련해서는 집중 안 되고 산만한 편, 대담하여 겁 없이 행동, 친구 요구 거절 못함, 하고 싶은 것은 해야 함 등으로, 10대 때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사회적 행위 여부, 이성과의 성관계 경험 여부, 학교생활 적응문제, 일반 학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함 등으로, 가족과 관련해서는 유전성, 가족관의 사회성(의사소통). 용인성 등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남용물질 활용 가능성(쉽게 구입), 남용물질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내용으로 4점 척도로 구성.
- 단약관련
  - 남용물질(마약류) 중단경험 및 계기와 경험한 프로그램별 횟수와 기간, 그 프로그램의 도움여부와 가장 도움이 된 프로그램과 세부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퇴소 이후 중단 여부 및 재발기간, 재발 이유, 앞으로의 단약 노력 계획 및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치료보호프로그램관련
  -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된 루트, 그리고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 치료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와 그 효과 및 도움이 된 세부내용, 꺼린 이유 및 자발적 입원 여부, 그리고 치료보호프로그램과 관련한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찬, 반)을 질문하였다. 또한 남용물질 사용관련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
- 교정시설프로그램관련
  - 교정시설 입소 경험 여부, 교정시설에서 남용물질관련 프로그램 참여 여부, 그 프로그램 종류 및 단약 도움 여부, 출소 이후의 단약 가능성 및 과거 출소 후의 단약 여부 등
- 기타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관련
  - 물질남용(마약류)관련 교육 수강 여부, 받은 교육의 종류 및 장소, 교육을 시행한 기관, 가장 인상적인 제공 기관, 그리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2가지 제시.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받았는지 여부, 상담자는 누구이며, 만약 상담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일반 사항 :

- 인구통계학적 내용으로 연령, 성별, 종교, 학력, 결혼상태, 참여 프로그램 입소일, 직업, 건강상태, 동거 가족 수, 생활수준, 거주지 등

#### 나.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 가족 연구내용

- 경험자 대상 설문지 중 일부를 조정하여 만들었음. 중복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 약물사용 안 상황 및 처리방식 관련 내용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을 처음 알게 된 상황과 처음 알았을 때의 심정 및 처리 방식 등을 4점 척도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처음 알게 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급격한 외적 변화(성적, 결석증가 등), 급격한 감정변화, 나쁜 친구와의 관계, 경제적 문제, 외모변화, 인지하게 된 방법 등으로,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과 관련해서는 한탄스러움, 인식하지 못함, 무관심, 사실은너부터 체계적인 대응까지,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는 무반응부터 격리, 병원, 경찰 등 다양한 처리방식.
- 의존자의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이유와 발생 문제 등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이유로는 가정환경, 유전적 요인, 호기심 등과 관련된 문항을 4점 척도로 구성. 남용물질(마약류) 사용으로 인한 가족 내의 발생 문제 또는 변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 신뢰관계 붕괴, 가정 파탄부터 가족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내용으로 4점 척도로 구성. 의존자 가족이 원하는 방향 및 상태로는 병원 입원, 치료를 잘 받음부터 건강한 사회인까지.
- 약물사용 중단관련 가족의 노력
  - 참여프로그램 유무, 참여프로그램 종류, 제공 프로그램 기관, 효과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 관여 정도 및 만족도, 참석빈도 등

#### 다. 자료 분석 방법

-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와 비율 T-검증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주로 현재 참



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재의 연령, 남용물질 등 3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본 조사는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전남지역에 소재하는 치료보호시설,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와 NA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루어졌다. 총 231건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부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9건을 제외한 212건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또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마약류 경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송천 컴퓨터 입소자 및 퇴소자 가족과 ‘인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참가자 가족 30명에게 발송하였으나 회신된 12부를 분석.

### 3. 연구 결과

#### 가. 경험자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관련

- ‘향정신성물질’(43.0%), ‘대마’, ‘유해흡입물질’, ‘진해거담제’ 순으로 남용하였고, ‘마약’, ‘근이완제’, ‘진통진정 항불안제제’는 3% 정도였다.
- 남용물질 전반의 처음 사용 연령은 ‘20-29세’, ‘19세 이하’, ‘30-39세’ 순으로 ‘20대 이하’가 77.3%를 구성하였다. 최초사용연령에 따른 남용물질사용 경험 비율이 ‘유해흡입물질’(16.1세)→‘대마’(22.4세)→‘향정신성물질’(27.8세)로 갈수록 연령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사용횟수는 평균적으로 ‘주1회 이상’ 사용(49.5%)이 가장 많았다. 사용량을 보면, 향정물질은 ‘필로폰 0.03g 이하’, 대마초는 ‘1개피정도’, 유해흡입물질은 ‘본드 1통’ 정도, 진해거담제는 ‘러미라 20~39알’ 사용이 가장 많았다.
- 향정물질, 대마, 마약은 주로 ‘친구/선배’ 등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유해흡입물질

은 ‘철물점’에서 직접 구입하였고 진해거담제는 주로 ‘약국’과 ‘밀거래 상인’을 통해, 근 이완제는 ‘밀거래 상인’을 통해 주로 구입하였다. 주로 ‘혼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동기

- 최초 사용동기로는 ‘호기심’(45.9%), ‘친구(선후배) 권유’(27.8%), ‘재미(쾌감)로’(10.9%), ‘주변에서 하니 나도 해보고 싶어서’(8.4%) 순이었다.
- 최근 사용동기로는 ‘과거의 사용경험’(24.6%), ‘피로해소’(18.4%), ‘친구(선후배) 권유’(13.6%), ‘성적 쾌감’(13.6%) 순으로 나타났다.

####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관련 제 문제, 증상정도 및 사용배경

- 전과 이유와 관련, 92.3%가 관련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포함) 위반하였다. 전과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사용’(64.8%), ‘소지’, ‘판매’(각 15.5%) 순이었다. 검거 횟수는 ‘2회’(24.2%), ‘1회’(21.2%) 순이었다.
- 발생 문제(대인관계, 경제 및 직업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부정하였다.
- 대인관계 문제는 ‘남 의심’, ‘가정문제’, ‘타인과의 싸움’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경제관계 문제는 ‘가족 신용 하락’, ‘약물판매(알선)’, ‘외상 및 경제파탄’ 순이었고, 직업(학업)관계 문제는 ‘능력 떨어짐’, ‘지각 결석 잦음’, ‘직장의 경고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 사용 증상 및 정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일 소홀히 함’(77.3%), ‘사용조절이 잘 안됨’(74.5%), ‘한번 사용하면 몇 일간 계속 사용’(69.6%),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량 증가 및 더 많은 시간 취해 있음’(67.8%), ‘자기 연민에’(60.3%)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사용 배경을 성격, 10대 때 행위, 가족, 지역사회 항목으로 구성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남용물질(마약류) 경험자들의 사용 배경을 조사한 결과, 가족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성격 및 지역사회 관련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하는 응답을 보였다.

#### - 치료와 재활관련

- 현 연령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93.7%) 단약을 시도하였다. 단약 계기로는 ‘검찰처벌’(26.0%), ‘죽음 생각’(22.9%), ‘치료 상담’(14.3%), ‘가정 붕괴’(13.3%) 순으

로 응답하였다.

-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아 본 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 프로그램’(32.3%), ‘치료보호’(17.6%), ‘보호관찰’(13.6%), ‘사회복귀프로그램’(11.6%), ‘정신과 병의원’(8.1%), ‘자조모임’(6.2%) 순으로 응답하였다.
- 받은 기간으로는 ‘3월 미만’(28.8%), ‘3년 이상’(23.6%) 순으로 응답하였다.
- 중단 및 중단유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사회복귀’, ‘치료보호’, ‘교정시설’, ‘보호관찰’, ‘자조모임’, 및 ‘병의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 도움이 된 세부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스포츠’, ‘약물교육’, ‘신앙’, ‘가족상담’, ‘개별상담’, ‘규칙적인 생활’, ‘직업재활’ 순으로 응답하였다.
- 퇴소 후 사용 중단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사용과 중단 반복 후 계속 사용’, ‘사용과 중단 반복 후 중단’, ‘계속 사용’, ‘바로 중단’ 순으로 응답하여, 91.9%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후 사용 재발 기간으로는 퇴소 후 6개월 이내가 73.6%로 매우 높았다.
- 사용 중단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의지’, ‘신앙생활’, ‘사용자와의 관계 중단’, ‘재활치료’와 ‘운동과 취미 열중’, ‘확실한 직업(경제)’와 ‘가족간의 화목한 관계’ 순으로 열거하였다.

#### - 치료보호프로그램

- 10명 중 8명이 안다고 응답하였다.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인’, ‘검찰’, ‘치료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중독 회복자’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약1명꼴로 ‘식약청 광고’를 통해 안 것으로 응답했다.
-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상식적인 질문 7개를 질문한 결과 10명 중 4명만이 4문항 이상을 알고 있었다. 잘못 알고 있는 현행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는 ‘판사가 치료보호 명령 가능’(82.1%), ‘유해흡입물질 사용자도 치료보호 대상’(73.0%), ‘치료보호프로그램에는 입원 이외의 치료 가능’(65.3%), ‘치료보호 기간은 1년 이하’(52.0%) 순이었다.
- 응답자의 10명 중 5명은 치료보호프로그램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받아본 사람 중에는 ‘검찰 처분’(22.7%), ‘자발적 입원’(16.0%), ‘가족 등 권

유'(10.2%) 순으로 응답하였다. 받은 사람 10명 중 8명 정도는 치료보호프로그램이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 및 중단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 도움이 된 세부 프로그램 내용으로 '약물교육', '스포츠', '신앙', '개별 집단상담', '가족상담' 순이었다.
- 응답자의 9%정도만이 꺼린 이유가 없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신분 노출'을 들었고, 이어 '정신병자 취급', '통제' 순으로 열거하였다.
- 응답자의 10명중 5명은 다시 사용할 경우 자발적으로 치료보호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나 36%는 유보하였다.
- 치료보호제도에 의견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치료보호프로그램 대상화', '외래형태 등 치료보호프로그램에 치료받는 경우 남용물질관련 체포 등 법적 불이익 받지 않는 제도 마련', '법원이 판결로 남용물질(마약류)사범을 치료보호프로그램에 보냄', '초범인 남용물질(마약류)사범(판매, 제조사범 포함)은 교정시설보다(치료보호)병원에서 치료받게 함', '남용물질(마약류) 단순 사용사범(판매, 제조사범 제외)은 재발 횟수와 재방 정도에 관계없이 교정시설보다는(치료보호)병원에서 치료', '단순 사용사범의 경우 체포 즉시 빠른 시일 내에(1주일 이내에) 치료보호프로그램에 강제 입원' 순으로 응답자의 77%에서 89% 정도 까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응답자의 95%정도가 남용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해 찬성하였다.

#### - 교정시설프로그램

- 응답자의 86%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약76% 정도는 교정시설 내에서 남용물질(마약류)관련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어떤 방식이든지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에서 받은 세부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약 80%정도가 '강의 형식', '비디오 시청', '예방교육 서적 및 자료 읽음'으로 1회성 프로그램이었다. 단지 10명 중 2명 정도가 '민간단체 및 종교단체에 의한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의료인의 상담교육' 등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 출소 이후에 남용물질(마약류)을 중단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중단 가능 응답

이 중단 어렵다는 응답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 교정시설 입소 경험자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출소 이후에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95% 이상이 ‘중단과 다시 사용’을 반복하다가 계속 사용하던지 아니면 중단하던지 하였고 일부의 경우 ‘계속 사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 상담 및 교육관련

- 응답자의 85%가 폐해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의 종류로는 ‘강의 형식’, ‘비디오 시청’, ‘서적 및 자료 읽음’ 순으로 응답하였다.
- 예방교육프로그램 제공 기관(시설)으로는 ‘교정시설’, ‘민간단체(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치료보호기관’, ‘보호관찰 프로그램’, ‘사회복귀시설’, ‘일반 사회생활’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로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병원’, ‘NA’, ‘민방위’ 등을 언급하였다.
- 인상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 기관(시설)으로는 ‘민간단체’, ‘교정시설’, ‘보호관찰’, ‘치료보호’, ‘사회복귀시설’ 순으로 응답하였다.
- 약 70%는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상담자로는 ‘의료전문인’, ‘종교인’, ‘사회의 남용물질관련 상담가나 프로그램’ 순으로 응답했다.
- 상담하지 않은 이유로는 ‘법적 처벌 두려움’,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해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 ‘주변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순으로 응답했다.

나. 경험자 가족

- 마약류 경험자 가족의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실태

- 문제가 있는(있었던) 사람은 10명에 약8명이 배우자라고 응답했다. 남용물질(마약류)로는 ‘향정신성물질’, 진해거담제, 대마초, 진통진정 항불안제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사용 연령으로는 ‘대마초’와 ‘진통 진정 항불안제’(각 19세), ‘진해거담제’(20세), ‘향정물질’(23.8세) 순이었다.
- 대부분 사용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사용한 것을 안 것으로 나타났다.

- 향정물질과 진해거담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사용한 후 30대에, 대마초는 5년 정도 사용한 다음 20대 후반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사용 중단하기 전에 평균 사용횟수로는 대부분은 주1회 이상, 나머지는 월 1회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을 알았을 때의 상화 및 처리방식

- 처음 알게 된 상황으로 ‘성적 하락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급격한 감정변화’, ‘옷 등의 냄새’ 순으로 응답하였다.
-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심정으로는 ‘한탄스러움’, ‘가족에게 사실 은닉’, ‘남에게 사실 은닉’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이유 및 발생 문제

- 사용한 이유로는 ‘단순한 호기심’, ‘또래의 영향 또는 지역사회에서는 마약류 사용이 일상적임’,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부족 및 과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 남용물질(마약류)로 인해 가족 내에서는 ‘가족간의 신뢰 붕괴’, ‘경제적 어려움’, ‘지역사회로부터 낙인’ 순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응답했다.
-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 및 상태에 대한 질문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노력’, ‘가족과의 관계정상화’ ‘치료시설에서 치료 잘 받음’, ‘단약 상태 유지’ 순으로 응답하였다.

- 치료 및 재활 일반

- 응답자 모두 단약 노력을 하였다고 응답했다. 단약 계기로는, ‘검찰처벌’, ‘남용물질(마약류)로 인한 죽음을 생각’, ‘치료 상담’, ‘가정 붕괴’, ‘종교적 감화’(각 15.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 현재 받고 있거나 받아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30.3%), ‘치료보호프로그램’(27.3%), ‘교정프로그램’(15.2%), ‘사회복귀프로그램’(12.1%), ‘보호관찰프로그램’(9.1%)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41.7%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33.3%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25%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 사용 중단 및 중단 유지에 도움이 된 세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질문에서, 응

답자들은 ‘신앙생활’(28.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17.1%), ‘가족 상담’(17.1%), ‘공동체의 규칙적인 생활’(11.4%), ‘약물 폐해 교육’(8.6%), ‘사회기술 훈련’, ‘입 소자간의 관계’, ‘스텝들의 인간적인 모습’(각 5.7%) 순으로 응답하였다.

- 퇴소 후 남용물질(마약류) ‘사용과 중단 반복 후 중단’(50.0%), ‘사용과 중단 반복’(33.3%), ‘계속 사용’(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 퇴소 후 사용 재발 기간으로는 ‘퇴소 후 1개월 이내’(41.7%), ‘퇴소 후 6개월 이내’(25.0%), ‘퇴소 후 즉시’(16.7%) 순으로 응답하였다.
- 단약을 할 때 가장 방해되는 요소로는 ‘주변의 사용자나 권유자의 존재’(21.2%), ‘쾌감’,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각 18.2%),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고립감’(15.2%), ‘불규칙한 생활’, ‘금단증상의 고통’(각 9.1%), ‘습관화되어 자포자기’(6.1%) 순으로 응답하였다.
- 앞으로의 재발 방지 노력 계획에 대해서는 ‘종교생활 유지’(75.0%), ‘자신의 일’(58.3%), ‘자조 모임 참여’ 및 ‘사용자와의 관계단절’(각 25.0%) 순서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을 위한 가족의 노력

- 12명 중에 11명이 치료재활프로그램에 가족으로써 참여 경험 있다고 응답했다.
- 참여프로그램으로는 ‘가족상담’(36.0%), ‘신앙생활’(32.0%),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20.0%), ‘약물 폐해 교육’(8.0%), ‘스트레스 해소 훈련’(4.0%) 순이었다.
- 프로그램 제공 시설은 종교기관(35.3%), ‘보호관찰소’(17.6%),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상담기관’(각 11.8%) 순이었다.
- 자신의 프로그램 참여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58.3%)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 운영자와 의존자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고, 16.7%는 ‘마지못해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자신이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해 10명 중 7명은 만족하였다.
-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요인으로는 ‘프로그램이 참가자를 계속 참가하도록 하는 유인책 부족’, ‘프로그램 자체가 창피하다는 인식’, ‘프로그램 참여는 이전의 고통스런 기억만 되살릴 것이라는 생각’ 순으로 꼽았다.

- 치료보호프로그램

- 10명 중 약7명이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1/3이상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38.5%) 치료보호프로그램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식약청의 광고활동 및 안내’, ‘지인’, ‘검찰’, ‘치료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중독 회복자’(각 15.4%)를 동등한 비율로 언급하였다.
- 잘못 알고 있는 현행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는 ‘판사가 치료보호 명령 가능’, ‘환각물질 사용자도 치료보호 대상’, ‘치료보호프로그램에는 입원 이외의 치료 가능’이었다.
- 약물의존자 가족이 치료프로그램을 받게 된 방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14.3%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받아 본 사람 중에는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의한 권유(반강제)’(50.0%), ‘검찰 처분’, ‘자발적 입원’,(각 14.3%) 순이었다.
- 10명 중 약 7명 정도가 치료보호프로그램이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중단 및 중단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된 세부 치료보호프로그램 내용에는 ‘신앙생활’(26.9%),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19.2%), ‘공동체의 규칙적인 생활’(11.5%), ‘가족상담’, ‘입소자 간의 관계’, ‘직업재활’(각 7.7%) 순으로 응답하였다.
- 꺼려한 이유로는, 10명 중 3명 정도는 ‘신분노출’(33.3%)을 들었고, 이어 ‘정신병자 취급’, ‘통제’, ‘전문가의 도움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각 16.7%) 를 열거하였다.
- 남용물질(마약류)을 다시 사용할 경우 10명 중 약7명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10명에 8명 정도(81.8%)가 ‘치료보호기간이 징역형기간 보다 짧아도 징역형을 받음’ 및 ‘남용물질(마약류) 의존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하여 치료보호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부담’에는 반대하였고, 10명에 약6명 정도(58.3%)가 ‘단순 사용사범의 경우 체포 즉시 빠른 시일 내에(1주일 이내에) 치료보호프로그램에 강제 입원’을 반대하였다.
- 남용물질(마약류) 사용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의견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91.7%)이 찬성하였고 약1명이 반대하였다.